

서로에게 소식을 전함시다

동 정

◆ 문학동 참전경찰회장



수원대학교 재단 이사장이기도 한 문학동 회장은 최근 일주일간 일본을 방문하고 京都에 있는 立命館 대학에서 공개특강을 가졌다. 在韓 立命館大學 同門會長 자격으로 이 곳을 방문한 문 회장은 「한국의 역사학자가 본 일본 인식, 해방후 한국 역사 변천에 대한 史的 고찰」이란 주제로 열변을 토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문 회장은 매년 일본 유학생들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立命館大學 同門會를 통한 한·일간 우호 증진과 상호 이해 협력에 노력해 왔다.

◆ 이근표 한국공항공사 사장 (前 서울경찰청장)



인천공항 설립 이후 김포공항의 국제선 기능 이전에 따라 발생한 여유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최근 롯데 컨소시엄과 「김포 국제공항 Sky Park 조성 민자유치 사업」을 위해 조인식을 가졌다.

◆ 허남오 회원 (前 서울 병무청장)



허남오 회원 (57)이 지난 달 29일 제2대 경남 진주국제대학교 신임 총장으로 선임됐다. 신임 허총장은 제21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한 뒤 진주경찰서장, 서울동부경찰서장,

대통령 민정비서관, 서울병무청장 등을 거쳤다.

◆ 정채욱 회원 (前 경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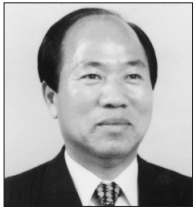
경찰청 총무과장, 전남 나주 및 경기 광명서장을 역임한 정 회원은 최근 한국경비협회 사무총장으로 취임했다. 정 회원은 「현직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사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협회의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011-9258-5618

◆ 유병은 회원 (중앙회 감사)



부산경찰청 수사과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 회원은 산하 지구대 직원들에게 직무교양을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전에 개최되는 유 회원의 교양강의는 수사기법, 초동조치 요령, 수사서류 작성 요령, 범죄현장 감식 요령 등 참석자들에게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례 중심의 생생한 교육이 되고 있다.

◆ 성환복 회원 (부산경우회 지문위원)



독도 자연생태 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성 회원은 최근 「아름다운 영혼」, 「자연과 인간의 길」이란 책을 저술했다. 성 회원은 「아름다운 영혼」에서 안중근 의사의 애국충정을, 그리고 그 교훈을 찾고자 했고, 「자연과 인간의 길」편에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통해 환경의식을 고취코자 했다.

정광섭 前 강원경찰청장

총포화약안전협회 이사장에 취임



지난 7월 3일新任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사장으로 정광섭 前 강원경찰청장이 취임했다.新任 정 이사장은 「국내 총포·화약류 등의 안전과 기술발전향상은 물론

회원사들의 권익보호에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 약 력 -

▶ 전남 목포서장 ▶ 서울 종로서장 ▶ 서울교통지도부장 ▶ 경찰청 보안국장 ▶ 경찰청 경무기획국장 ▶ 강원경찰청장

◆ 최중락 수위회장



최 회원은 지난 7월 6일 백승환 회원(前 총경)과 함께 최근 경기서부지역 여성연쇄납치살인범을 검거한 군포서 강력3팀(팀장 경위 강성수)을 방문하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격려금을 전달했다.

주소 변경

◆ 남상웅 前 경찰대학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 1동100 이매촌 삼성@ 1004-601호 ☎ 031-709-3731

◆ 박진석 회원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80 성원 상패빌@ 101동 1905호 ☎ 02-404-0050

◆ 유봉안 회원



서울 강남구 청담동 60 삼성 청담공원@ 107-1202호 ☎ 02-3445-5498

◆ 김병계 회원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백현마을 서해 그랑블@ 2608-1402 ☎ 011-304-2808

◆ 김용채 회원



서울 관악구 봉천6동 월드 메르디앙 101동 502호 ☎ 02-885-1255

◆ 김용현 회원



서울 성북구 길음동 1276 삼부@ 102동 609호 ☎ 02-913-4568

◆ 최권집 회원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486 동일 하이빌@ 101동 1002호 ☎ 031-282-3765

결 혼

◆ 이근명 회원 (前 경찰청 차장)의 차남

이 차남 6월 24일 오후 1시 서울 조선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 031-717-3139

◆ 정채욱 회원 (前 경무관)의 장남

도원군이 지난 6월 28일 수요일 오후 6시 서울 반포 JW메리어트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 02-596-5618

◆ 권진욱 회원의 장녀 유미 양이

지난 6월 24일 토요일 오전 12시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 02-576-3539, 011-302-2522

인 사

◆ 경우회 중앙회

• 朴鍾厚 사업운영처장 (前 도로교통공단 전남지부장)

◆ 도로교통공단

• 김우철 감사실장 (총무처장)
• 김상구 경기도지부장 (감사실장)
• 장동균 강원도지부장 (안전시설처장)

부 음

◆ 박정락 대구달성경우회장이 지난 6월 20일 숙환으로 별세

◆ 이주자 여경회장 (夫君 전중수 서울경우회 이사)의 모친이 지난 6월 14일 오전 숙환으로 별세. 향년 96세

모 임

◆ 경찰 불자회

최근 전남 해남 두륜산 대흥사에서 전국 의 전현직 신도 등 3백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5차 정기 대의원 총회 및 철야 정진 행사를 갖는 한편 조직발전 유공자에 대해 한진호 회장(서울경찰청장)의 감사장 및 표창장을 수여했다.

경우장학회 이사회

임원선출 · 지난해 결산



경우장학회는 지난 6월 30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동 171번지 경우회 회의실에서 2006년도 상반기 이사회를 갖고 장학금 1억원을 기탁한 박순덕 前 여경회 부회장에 장학금 기탁증서를 수여하는 한편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안과 금년도 장학금 선발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공석중인 이사에 이용상 경우회 사무총장을, 감사에 장학금을 기탁한 김유령 여수해경경우회장과 박순덕 전 여경회 부회장을 각각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한편 경우장학회는 창설 30주년인 오는 2007년에는 장학생을 50명으로 늘리기로 결의했다.

專門醫에 듣는다



손 상 욱 교수
〈고대 안산병원 피부과〉

있는 사람들에게는 걱정이 늘어간다. 그 병은 다름 아닌 무좀이다. 무좀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평소 생활할 때 가볍고 넘쳐나고 불편한 느낌이 든다면 일을 하는데 여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문제가 나에게서만 끝난다면 다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좀이 있다면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 여기서 치료라는 말은 무좀을 기존의 관념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지저분해서 걸리거나 더울 때만 심해지는 단순증상이 아니라 전문의의 진단과 함께 꾸준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본인이 알아야 한다. 즉 무좀을 숨기지 말고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무좀은 대표적인 피부진균증이다. 피부진균증이란 진균(곰팡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부질환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곰팡이가 사람 피부에 감염되어 피부진균증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발에 곰팡이가 피는 경우를 무좀이라고 일컫는다. 20~40대에 가장 많이 발병하고, 드물게는 소아에게도 생긴다. 특히 소아에서 아토피 피부염 등으로 스테로이드 연고를 장시간 발에 발랐는데도 피부염이 근절되지 않는다면 한번쯤 무좀을 의심해 봐야 한다.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무좀은 무시해도 되는 병이 아니라, 보통은 쉽게 치료되지만, 난치성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방과 치료가 중요하다. 무좀을 일으키는 곰

팡이는 덥고 습기 찬 곳에서 잘 자란다. 발에 땀이 많이 나거나, 목욕이나 수영 후 발을 잘 안 말리거나, 신발이나 양말이 꽉 끼거나, 날씨가 덥거나 하면 무좀이 잘 생기기 된다.

무좀의 증상

발가락 사이의 피부가 벗겨지거나 갈라지고 각질이 일어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이것을 지간형 무좀이라고 한다. 가장 흔한 무좀의 초기 증상이다.

무좀이 오래 되다 보면 가려운 증상은 없이 주로 발바닥에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고 발바닥이 두터워지는 경우를 각화형 무좀이라고 한다. 증상이 거의 없어서 무좀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가렵지 않다고 무좀이 없는 것이 아니다. 발바닥에 두껍게 각질이 있을 때는 벗겨내려고만 하지 말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정확한 치료, 완치를 위해...

일단 진단이 되면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간단한 경우에는 바르는 무좀약만 써도 충분히 증상이 좋아질 수 있다. 더 심해서 진물이 나는 경우에는 진물을 없애기 위해 약물에 발을 담그는 치료를 병행 할 필요가 있다. 더욱 심한 경우에는 먹는 무좀약을 처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치료를 받기 전에 정확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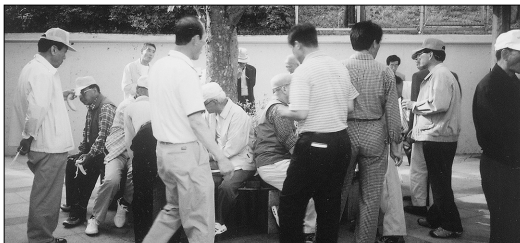
무좀이 걸리면 과격함 치료는 피하고 의사에게 처방 받은 약을 충분한 기간 동안 꾸준히 바르고 먹는 것이 중요하다. 보기에는 나아졌더라도 곰팡이가 한동안 살아남아 있다가 무좀이 재발될 수 있다.

(진료상담 ☎ 031-412-5180)

7면에 이어

시·도 경우회 활동 - ③

전북정읍 경우회



최근 최장갑 회장과 회원 80명 등은 「큰바위 일굴 조각공원」과 「탄산온천」에서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우의를 돈독히 하는 춘계야유회를 가졌다.

마산중부 경우회



최근 김덕현 회장을 비롯한 고문과 임원 등 10여 명이 모여 고문회의를 갖고 예산확보 방안 등 당면 현안을 논의했다.

제주서귀포 경우회



최근 한창조 회장을 비롯한 회원 110여명은 제주 돌문화 공원과 항일기념 전시장, 소각로 환경시설을 견학하고 환경보전 실태를 점검하며 환경 보전의식을 고취했다.

강원 참전경찰회



최근 현충일을 맞아 김치대 회장, 이명규 강원경찰청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전현직 합동으로 경찰충혼탑을 참배하고 영령들의 명복을 기원하는 추모

행사를 가졌다.

전북 참전경찰회



최근 황만용 회장 등 회원 40명은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자리산 뱀사골 현충탑을 찾아 호국영령들의 넋을 추모했다.

부산 참전경찰회



최근 민영아 회장 등 회원 35명은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전북 임실 소재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호국영령들의 넋을 위로했다.

부산 · 경남 여경회

최근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과, 부산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현직들과 함께 부산 롯데 백화점 주변

에서 실종 아동찾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대구 여경회



최근 황정남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20여명은 대구백화점 주변에서 실종 아동찾기 순회 캠페인을 실시했다.

대전 · 충남 참전경찰회



최근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대전국립묘지를 참배하고 호국영령들의 넋을 추모했다.

전남 참전경찰회



최근 진도 참전경찰회원, 유관단체 회원 등 250명은 향토문화회관, 임실 국립묘지 등을 찾아 잊혀져 가는 6.25 전쟁을 재조명하고 호국정신을 계승하는 한편 안보의식을 강화했다.

전북 여경회



최근 성옥주 회장 등은 관내 「아가페」 노인요양원을 방문하여 위로금을 전달하고 거주 노인들의 목욕 및 청소 자원봉사를 실시했다.